

군산시, 조선·해양 산업 재도약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 선정... 산업 현장에 AI 도입해 생산성 등 제고

군산시가 산업통상부의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 모빌리티 산업의 AI 기반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조선·해양 산업의 재도약을 본격 추진한다.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산업 현장에 AI를 도입해 생산성 혁신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국비 140억 원, 도비 21억 3,000만 원, 시비 49억 7,000만 원 등 총 252억 원을 투입해 군산 국가산단에 '해양모빌리티 AX 혁신허브'를 구축한다.

핵심 추진 분야는 △AX 종합지원센터 구축 △제조 AI 오픈랩 조성 △AX 가상공장 실증플랫폼 구축 △SaaS 기반 제조·AI 서비스 지원 등 4대



군산시가 산업통상부의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 /사진=군산시

프로젝트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 기관이 협력해 시험·인증, 공동 장비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특히 친환경·스마트 선박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가속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지역 조선산업 재건과 해양 모빌리티 산업의 첨단화를 앞당기겠다"며 "군산이 대한민국 중소기업 AX 전환의 대표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만 기자

군산시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 선정

(AI Transformation:인공지능 전환)

국비 140억 포함 252억 투입

군산시가 산업통상부가 전국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산업현장에 AI를 도입,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한편 입주기업의 신사업 창출을 지원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올해부터 4년간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국비 140억 원, 도비 21억 3000만 원, 시비 49억 7000만 원 등 총 252억 원을 투입해 '해양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 거점 육성을 목표로 한국조선해양기자

재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기관이 함께 협력한다.

중점 과제로는 △AX 종합지원센터 구축 △ 제조 AI 오픈랩 조성 △ AX 가상공장 실증플랫폼 구축 △ SaaS(Software as a Service·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제조 및 AI 서비스 지원 등 4대 핵심 프로젝트이다. 특히 기업 간 협업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험 및 인증서비스와 공동 장비를 제공하고, 해양 모빌리티 산업 특화교육연구 기능을 병행해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스마트 선박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이환규 기자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 군산 공모 선정 국비 140억 확보

군산시가 산업통상부의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며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 전환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 군산형 산업지형의 재편을 예고하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140억 원을 확보해 조선·해양 분야 중소기업들을 위한 'AI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시가 조선산업의 재건을 위한 핵심 축으로 AI 기반 산업 혁신 전략을 내세우면서, 지역 제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군산=이재봉기자